



제목	Love and Devotion: From Persia and Beyond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Bodleian Library, University of Oxford
발행일	2012. 12. 15.
저자	Susan Scollay(편집자)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221
ISBN 또는 ISSN	978-1851242788

내용 요약

유수프(Yusuf)와 즐라이카(Zulaykha), 후수라우(Khusrau)와 시린(Shirin), 그리고 라일라(Layla)와 매즈눈(Majnun) 등은 페르시아 시인들이 관객들을 사로잡기 위한 사랑 시를 쓸 때 자주 등장시키는 연인들이다. 사실 페르시아 시인들은 수백 년 동안 시대를 초월하여 관객들에게 세속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사랑 이야기를 암송하고 재해석을 해 왔다. 이러한 사랑과 헌신에 관한 이야기는 이란뿐만 아니라 인접한 무갈(Mughal)과 오스만 제국(Ottoman Empires)에도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다.

『사랑과 헌신: 페르시아와 그 너머』에서 문학과 예술, 그리고 철학 전공자들은 이 제목에서 연상되는 이야기를 절묘하게 담아내는 삽화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페르시아에서 시는 14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인들의 문화생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시인의 후견인들은 시인에게 서정시와 서사시 사본을 의뢰했다. 하피즈와 루미, 그리고 다른 많은 시인들의 훌륭한 작품 내용을 삽화에 담은 원고가 100페이지 이상이 된다. 페르시아 시인들의 시적 메아리는 페르시아를 넘어 단테와 셰익스피어에게 이르기까지 울려 퍼지고 지금도 유럽 문학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이슬람 세계의 예술과 문화 전문가이자 예술 사학자인 스콜레이(S. Scollay) 박사가 편집한 이 호화로운 판본은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